

油價衝擊 이후의 內·外經濟

李 鍾 燾

〈中央大學校 教授·經博〉

世界經濟의 方向

최근 IMF와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세계經濟의 展望은 예상외로 밝게 나타나고 있다. 4個月前만하더라도 OECD가 예측한 금년도 세계經濟는 그렇게 樂觀的인 것이 아니었으나 몇개월사이 好轉되고 있는 것이다. OECD가 지난 12월에 83年度 先進國의 經濟를 전망한바에 따르면 <表-1>에서와 같이 實質成長率이 1.5%에 지나지 않으며 스태그플레이션指數(消費者物價上昇率+失業率)은 15.75%로서 樂觀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表-2>에서와 같이 최근에 다시 발표한 先進國의 經濟成長展望에서는 成長率自體를 上向修正함

로써 「世界景氣는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回復傾向이 뚜렷해졌다」고 진단하였다.

이와같이 OECD가 금년도 세계경제를 밝게 전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지난 3月 14日 原油價格이 OPEC發足 이래 20年來 처음으로 13%나 폭락하였다는 사실과 둘째, 최근 美國의 高金利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인데 이를 근거로 당초의 展望值에서 成長率은 높게, 物價는 낮게 각각 修正한 것이다.

1929年이래 최대·최장의 불경기로 지칭되는 최근의 세계적 不況이 第2次 石油波動에서 비롯되었으며 美國의 高金利政策때문에 이 不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만큼 그 두가지 원인이 동시에 해소돼 가는 움직임을 보고 세계경제를 樂觀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將來를 展望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原油價格의 引下와 美國金利의 低率化

1983年 主要 先進國의 經濟展望

<表-1> (單位: %)

國 別	成長率	物 價 上 昇 率	失業率	經常收 支(10억 弗)	스태그 플레이 션指數
美 國	2.0	5.5	10.0	- 31.25	15.5
西 獨	-0.25	3.75	7.0	0	10.75
불란서	0.5	9.0	8.5	- 8.25	17.5
英 國	1.0	6.0	12.3	0.5	18.3
日 本	3.5	3.25	2.3	11.25	5.56
OECD	1.5	6.75	9.0	- 54.0 (EEC - 10.3)	15.75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1982. 12

日本經濟新聞, 1983年 1月 12日

註: 消費者物價上昇率임.

OECD의 經濟成長率展望

<表-2> (單位: %)

	1982	1983	1984
OECD全體	△ 0.2	2	3
美 國	△ 1.7	3	4.25
日 本	3.0	3.25	3.5
西 獨	△ 1.1	0.25	1.75
歐 洲	0.3	0.5	1.75

資料: 日本經濟新聞, 1983年 4月 25日

가 곧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그대로 높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두가지의 호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를 해명하여야 한다.

原油가 선진국과 대부분의 非産油 開發途上國의 製品原價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 또는 세계무역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으로 보아 그 價格의 대폭적인 引下가 세계경제와 各國經濟의 活性化에 대하여 好條件을 마련하여 주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産油國의 原油收入이 필연적으로 격감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産油國이 그들의 輸入을 감소시킬 때 세계수출량은 축소될 것이며 그들의 海外資産을 引出할 경우 國際金融과 國際金利는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原油價格의 대폭적인 引下로 말미암아 逆오일쇼크가 발생하여 世界經濟는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와같은 표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原油價格의 대폭적인 引下가 가져올 금후의 세계경제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原油價格引下의 배경과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세계적인 불경기의 특수성(長期性和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세계경제의 循環的 論理속에서 두가지 好條件이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注視하여야 할 것이다.

原油市場과 國際金融市場動向

原油價格引下와 美國金利引下라고 하는 두가지 好條件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즉, 1973年 第1次 石油波動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이 10年만에 처음으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착실히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후시 安定恐慌(Stabilization Crisis)이 시작되지 않나하는 우려이다. 다시 말하면 經濟가 安定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投資需要는 물론, 消費需要(內需 및 輸出需要)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不景氣의 直接的인 원인이었다고 하였던 原油價格과 美國金利의 문제점이 다소 해결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세계경제의 活性化로 연

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와같은 견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不景氣의 循環性和 構造性에 대하여 전술한 두가지 好條件이 어떻게 作用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큰 影響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하여서는 原油供給市場動向과 國際金融市場動向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月14日 原油價格이 대폭적으로 인하된 상식적이며 직접적인 背景은 우선 70年代 原油價格의 暴騰에 따라 원유의 공급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비롯한 非産油開發途上國이 원유의 소비를 철저히 절약함으로써 원유의 需給不均衡이 나타난 결과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유수급불균형속에서 종래 原油價格引上의 當事者였던 OPEC의 原油生産 및 輸出面에의 比重이 크게 弱화됨에 따라 原油供給自體의 調節能力을 상실하여 더 이상의 高油價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것도 직접적인 원인이다. 즉, 供給獨占力을 상실한 처지에서 獨占價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表-3>에서와 같이 第2次 石油波動이 시작된 1979年의 경우 全體原油生産의 47.8%, 그리고 全體原油輸出의 79.3%를 차지하고 있었던 OPEC의 위치가 1982년에는 生産이 35.1%,

世界石油生産 및 輸出에 대한 OPEC의 比重

<表-3> (單位: %)

年度	區分	生産 割合	輸出 割合
1960		41.8	-
1965		47.4	-
1970		49.9	86.3
1973		54.2	87.3
1979		47.8	79.3
1980		43.8	74.8
1981		39.3	69.4
1982		35.1	60.2

資料: OECD「World Energy Outlook, 1982」

日本에너지 經濟研究所 「에너지經濟, 1983年 3月號」

OECD 諸國의 에너지 및 石油消費節約

<表-4> (單位: %)

區分	年平均上昇率 ¹⁾			累積上昇率 1973~81
	1960~73	1973~78	1978~81	
GDP	1	2.3 ²⁾		+19
에너지消費	1	0.2 ²⁾		+4
石油消費	7.7	△0.7 ³⁾		-3
GDP 單位當 에너지消費	0.1	△1.6	△3.2	-13(-16) ⁴⁾
GDP 單位當 石油消費	2.5	△1.9	△6.8	-20(-26) ⁴⁾
自動車1臺當 가솔린消費	△0.2	△1.4	△6.5	

- 1) OECD 主要 7國 基準
- 2) 1973~81年平均, OECD 全體
- 3) 1973~80年平均, OECD 全體
- 4) 1973~81年 累積

資料: OECD 「World Energy Outlook, 1982」

그리고 輸出이 60.2%로 각각 크게 떨어졌다. OPEC의 生産比重이 이렇게 저하하는 가운데서 1982年 3月の 生産割當量이 1천 7백 50만 배럴(日産)이었는데 同年 12月の 生産量은 1천 9백 67만 배럴로 割當量의 12.4%나 과잉공급되기도 했다.

반면에 <表-4>에서처럼 OECD 諸國의 석유 소비절약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즉, 1978~81年의 경우 GDP 單位當 에너지消費가 年平均 3.2% 줄어든데 비해 石油消費는 6.8%나 감소하여 2배이상의 節約效果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非産油開發途上國에서도 石油消費節約運動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石油消費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代替에너지의 開發로 말미암아 石油消費의 감소추세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폭적인 原油價格의 引下가 需給의 不均衡에서 비롯되었지만 한편으로는 非OPEC 産油國의 증가와 OPEC 自體의 무모한 세계석유 전략에도 그 원인이 있다. 1960年 OPEC가 발족한 이래 10년간은 주로 内部(13個國)의 결속화에 노력하였으며 1970年代에는 이러한

결속을 배경으로 하여 生産獨占과 價格獨占을 유지하는데 힘써 왔다.

그러나 80年代에 들면서 原油의 生産과 價格의 獨占化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OPEC이 原油生産의 주도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原油의 生産 그 자체일 뿐 결코 세계석유시장에 대한 原油의 供給權이나 流通權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PEC이 世界石油市場을 獨占하려는 무모한 石油戰略을 전개함으로써 國際石油資本(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과의 쟁탈전이 벌어져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은 原油의 供給過剩을 촉진시킨다.

OPEC은 종래 방대한 조직력과 原油의 供給權 및 流通權을 가진 國際石油資本을 통하여 原油를 판매해 왔는데 이러한 판매방식을 점점 축소시키고 급기야는 직접 政府間베이스(GG方式)의 판매방법을 택함으로써 原油生産의 調整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더 큰 어려운 국면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다.

OPEC은 원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原油價格下落을 방지하려는 「不況카르텔」에는 약할 수밖에 없으며 또 한편에서는 國際石油資本이 現物販賣價格의 引下競争에 가세함으로써 이미 1982年 5月을 고비로 原油의 現物市場價格이 下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原油價格의 대폭적인 引下로 말미암아 OPEC의 原油販賣收入은 필연적으로 감소하고 그만큼 産油國은 外貨不足에 직면한다. OPEC의 oil dollar가 예상외로 격감한다면 産油國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輸入을 감소시키든가 아니면 그들의 海外資産을 引出할 것이기 때문에 世界貿易과 國際金融은 그 만큼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表-5>에서와 같이 産油國은 原油價格이 큰 폭으로 引下되기 이전부터 經常收支의 赤字幅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經常收支는 赤字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또 한편 第2次 石油波動이후 非産油開發途上國의 經常收支 赤字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先進

先進國·開發途上國의 經常收支 推移

〈表-5〉

(單位: 億弗)

區 分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전망)
先進工業國	177	△ 139	178	△ 22	△ 49	305	△ 102	△ 437	△ 37	110
產 油 國	67	683	354	403	303	29	698	1,164	686	250
非產油開發途國	△ 116	△ 370	△ 465	△ 320	△ 283	△ 392	△ 589	△ 862	△ 990	△ 970

資料: IMF 年次報告(1982)

註: IMF 公的資金 移轉은 제외

工業國의 經常收支마저 호전되지 않는 등 國際貿易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이는 곧 各國의 保護貿易主義의인 경향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開發途上國의 經常收支赤字 확대는 <表-6>에서와 같이 對外債務負擔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즉, 1971년에 900억불에 지나지 않았던 開發途上國의 對外債務殘高가 1982년에는 6,260억불로서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 더우기 元金返濟에 있어서 利子의 경우 1971년에 33억불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601억불로서 약 20배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결국 貿易 赤字와 外債負擔이 累增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은 매년 필연적으로 對外債務償還比

率(DSR)이 惡化됨으로써 1981년부터는 위험수위라고 하는 20%線을 上廻, 國際金融上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음을 <表-7>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또 國際金融은 선진공업국에서 520억불, OPEC가 630억불을 내 회전되고 있는데 선진공업국의 국내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資金流入이 어려운 실정이며 가장 큰 資金供給源인 oil dollar마저 격감될 전망이기 때문에 國際金融의 조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그림-1>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세계경제 회복의 두가지 好條件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과 國際金融上의 障礙요인이 가로놓여 있어 世界經濟는 그 回復의 實現이 지연될 수밖에 없

開發途上國의 對外債務殘高

〈表-6〉

(單位: 億弗)

	1971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債務總額	900	2,200	2,740	3,450	4,060	4,650	5,300	6,260
元金·利子返濟總額	110	319	421	590	756	869	1,093	1,313
(元 金)	77	214	292	414	496	497	608	712
(利 子)	33	105	129	176	260	372	485	601

資料: OECD 「開發途上國의 對外債務報告」, 1982年 12月

註: 1982年은 OECD의 展望值임.

非 OPEC 開發途上國의 對外債務償還比率(DSR)

〈表-7〉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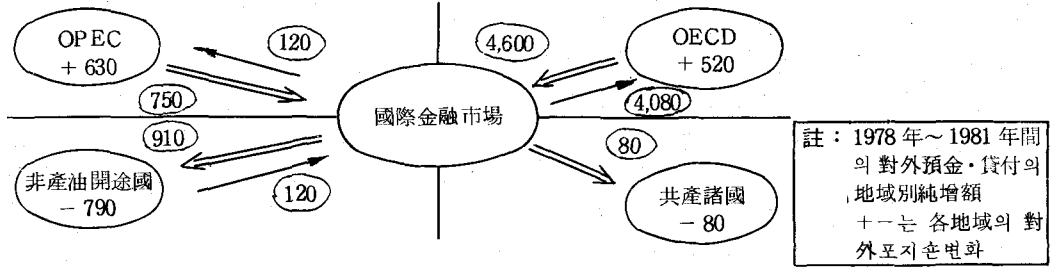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D S R	11.0	11.5	14.0	13.9	14.0	17.3	18.1	16.4	21.0	22.3
利子支拂分	4.2	3.8	5.0	4.7	4.6	5.5	6.2	7.2	8.5	8.5
元金返濟分	9.8	7.7	9.0	9.2	9.4	11.8	11.9	9.2	12.5	13.8

資料: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2年 5月

註: 1982年은 展望值임.

資料: Bank of England - Quarterly Bulletin 1982. 3

(單位: 억弗)



<그림-1> 國際金融市場 (money flow)

다는 主張도 근거를 갖게 된다.

世界經濟回復의 二重苦

세계경제가 原油價格의 引下와 美國의 金利下 落이라고 하는 好條件을 맞이하여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①先進國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②產油國의 石油收入 減小 ③開發途上國의 外債累增이라고 하는 惡條件 때문에 景氣回復力이 中和되어 예상과 전혀 다른 樣相을 보일수도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불경기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하였던 長期性不景氣 또는 인플레이性不景氣라고 하는 그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 回復力이 弱하여 景氣循環의 調整期間이 예상보다 길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景氣循環論의 상식에 있어 好景氣(擴張) → 後退(收縮) → 不況 → 回復이라고 하는 4局面등식에서 後退의 경우는 대개 빠르고 回復의 경우는 느린 것이 일반적인 傾向이다.

따라서 景氣回復의 좋은 조건이 나타났더라도 그것이 好景氣로 연결되기까지는 예상외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 이래 30年以上 계속되어 온 今世紀의 繁榮이 20世紀體制(①各國의 방대한 財政支出(large government) ②IMF 및 GATT 體制 ③Pax Americana)에 연유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20世紀體制마저 1980年代에 들면서 차츰 쇠퇴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不況의 치유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形편이다.

世界經濟의 循環性을 진단할 때 景氣循環의 引擎역할을 하고 있는 投資의 순환적 變動을 살펴 보면 景氣變動의 向方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즉, 비교적 長期間(5年以上)의 週期性을 갖는 設備循環(主循環)과 비교적 短期間(3年以下)의 週期性을 갖는 在庫循環(小循環)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경우 不景氣가 심화되지도 않고 그 回復도 빠를수 있으나 만일 兩循環이 重復되어 동시에 침체할 경우 不景氣는 심화되고 좀처럼 回復도 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論理에서 보면 지금의 세계적인 不景氣가 長期性을 띠고있는 이상 設備投資와 在庫投資의 不振도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兩循環이 모두 침체해 있기 때문에 景氣回復의 뚜렷한 樣相이 곧 나타날 수는 없다. 다시말하면 投資의 循環的 二重苦속에서 消費需要(內需 및 輸出)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好景氣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美國經濟가 금년에 들어와서 좋아질 전망을 보이고는 있으나 <表-8>에서와 같이 과거 10年間의 勞動生産性 및 資本裝備率 그리고 設備投資增加率 및 對GNP比率에 있어 세계경제의 活性化를 촉진시킬만한 水準에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즉, 노동생산성 및 자본장비율이 가장 낮고 設備投資增加率도 낮은 水準에 머물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景氣回復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設備投資率과 資本裝備率이 가장 높은 日本의 경우에도 <表-9>에서와 같이 금년(3個月間)에는 오히려 6年만에 처음으로 設備投資率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今年景氣를 樂觀的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것 같다. 특히 日本은 1982年

主要國의 設備投資率 및 資本 裝備率

<表-8>

(單位: %)

區分	日本				美國				西獨				佛蘭西			
	勞働生産性上昇率前年比	民間企業設備投資前年比	對GNP設備投資率	資本裝備率前年比	勞働生産性上昇率前年比	民間企業設備投資前年比	對GNP設備投資率	資本裝備率前年比	勞働生産性上昇率前年比	民間企業設備投資前年比	對GNP設備投資率	資本裝備率前年比	勞働生産性上昇率前年比	民間企業設備投資前年比	對GNP設備投資率	資本裝備率前年比
1960~73	8.5	13.5	15.9	10.4	2.2	5.7	10.0	2.6	4.4	4.7	13.5	5.7	5.3	6.8	12.9	
1973~79	3.0	1.8	16.2	6.1	0.5	2.8	10.4	0.9	3.2	2.6	12.7	4.7	2.8	1.0	12.3	
1970	9.8	19.5	19.6	13.2	△1.6	△2.6	10.5	3.2	4.8	16.5	14.5	4.1	4.4	3.7	13.3	
71	4.1	△2.1	18.3	12.5	2.2	△1.4	10.0	2.7	3.0	6.4	14.9	5.1	4.9	7.7	13.6	
72	8.7	3.2	17.3	12.4	2.5	7.8	10.2	0.6	4.0	△0.0	14.4	5.9	5.3	6.0	13.6	
73	6.0	16.0	18.5	8.8	2.0	16.1	11.0	1.8	4.6	△0.2	13.7	5.1	3.9	5.1	13.6	
74	△0.6	△5.1	17.7	9.5	△3.1	△1.7	10.9	2.4	2.6	△11.2	12.1	7.2	2.7	△1.1	13.0	
75	2.6	△5.5	16.4	7.6	0.4	△12.1	9.7	3.5	1.7	△1.5	12.1	7.6	1.3	△4.6	12.4	
76	4.3	0.7	15.7	5.1	2.4	5.3	9.7	△0.9	6.1	6.6	12.3	4.5	4.8	6.1	12.6	
77	3.9	2.5	15.2	4.6	1.5	11.9	10.3	△0.4	2.9	7.1	12.8	3.7	1.3	0.3	12.1	
78	3.7	6.6	15.5	4.6	0.3	9.1	10.7	△0.5	2.5	6.6	13.1	2.8	3.5	2.7	11.9	
79	4.1	12.5	16.5	5.2	△0.3	6.5	11.0	1.2	3.3	9.6	13.8	2.3	3.2	3.0	11.8	
80	-	6.4	16.8	-	-	△5.0	10.7	-	-	-	-	-	-	4.9	12.2	

資料: 日本經濟企劃廳調查局編 「經濟白書」, 1981年. p. 77.

日本の 1983年度 設備投資計劃調査 結果

<表-9>

區分	調査時點	全産業	製造業	非製造業
日本開發銀行	2月1日	1.8	△5.3	7.9
日本銀行	2月中	△2.3	△6.8	2.2
日本經濟新聞	2月1日	△0.3	△8.2	6.8
日本興業銀行	3月上旬	△0.3	△6.7	3.2
日本長期信用銀行	2月末	0.7	△8.1	6.1
日本債券信用銀行	3月上旬	2.0	△6.6	6.6

資料: 日本經濟新聞, 1983年 4月 12日, 12版.

註: 모두 工事베이스의 前年度比 增減率(%),

△=減少

의 輸出實績이 30年만에 처음으로 10.1%(1,366억불)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世界貿易의 측면에서도 올해의 狀況이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國內景氣展望과 對應戰略

이상에서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景氣回復展望을 고려할 때 GNP成長의 대부분을 輸出

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國內景氣의 전망을 樂觀的으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GNP의 外債依存度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金融市場의 환경변화의 영향도 민감하게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우리의 금년도 GNP成長目標值인 7.5%를 선진국의 최근 成長實績値와 비교하여 보면 아주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높은 經濟活動人口增加率(2.7%)과 높아질 經濟活動參加率(56.4%)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매년 3%이상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高度經濟成長은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 20여년간 우리의 GNP成長이 年平均 36.5%라고 하는 높은 輸出增加率에 의하여 實現되었기 때문에 輸出은 GNP成長의 견인차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2年度의 수출실적은 81年보다 겨우 2.9% 증가한 216억 불로서 당초 目標值(247억불)보다 무려 31억 불이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올해 4月末 現在의 輸出實績은 67억불로서 昨年同期對比 1.4% 증가에 그친 정

도였으며 輸出信用狀來到額은 58 억불로서 昨年 同期對比 0.7%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輸出目標인 235 억불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輸出增大를 위한 根本的인 對策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國內景氣의 振作에 經濟政策의 목표를 둔다면 수출이 不振하다고 해서 금년도 國內景氣를 비판할 필요도 없으며 7.5%의 成長目標値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景氣回復의 적극적인 要因인 企業의 設備投資活動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근래엔 新投資마저 저조하기 때문에 國內景氣(內需)에 대한 전망을 크게 樂觀할 수도 없다. 韓國銀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금년 3個月동안 企業에 대한 金融機關의 總貸出額은 6,983 억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에서 94.7%가 企業의 運轉資金이며 設備投資를 위한 貸出額은 겨우 5.3%인 370 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3月末現在 設備投資의 貸出殘高는 3조 3,924 억원으로 2月末에 비교하여 오히려 459 억원이 감소한바 이를 작년 같은 기간중 設備投資를 위한 貸出總額이 全體金融貸出額의 17.3%에 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우려해야 할 만큼 저조한 실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長期設備投資와 관계가 있는 外貨貸出殘高 역시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와같이 GNP 成長 및 景氣循環에 적극적 요인인 輸出과 投資가 현재로서는 시원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 國內景氣역시 크게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景氣回復의 두가지 好條件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國內外의 景氣가 上昇局面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經濟企劃院이 지난 3·4月中 經濟動向에 대한 報告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3月の 景氣先行指數는 170.1 (75年=100)로 2월에 비하여 1.7%나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景氣動向을 나타내는 同行指數도 0.7% 상승하였고 韓國銀行이 作成한 景氣豫告指標도 80年이후 가장 높은 1.4로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景氣回復추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設備投資가 증가되어야 하며 輸出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강조한바와 같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景氣回復을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産業別·業種別 그리고 企業別로 部分的이며 個別的인 回復에 머물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國內外의 經濟與件에 對應한 經濟施策은 設備投資의 擴大와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強化에 그 力點이 두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原油價格引下의 혜택이 국민경제에 확산될 수 있는 기동적인 財政·金融政策이 구사되고 內需振作施策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하며 새로운 技術産業도 진흥시켜야 할 것이다.

設備投資를 擴大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資源과 資本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産業과 業種의 方向으로 産業構造를 改編해 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具體的으로 産業間構造 (Inter-Industrial Structure)의 改善보다도 産業內構造 (Intra-Industrial Structure)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資本裝備率과 에너지比率이 낮 으면서도 雇傭效果가 큰 加工型工業으로 종래의 素材型工業을 改編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과거 10여年間 年平均 7.3%의 GNP 成長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8.4%의 石油消費增加率을 가져 온데 비하여 日本이 3.8%의 GNP 成長을 이룩하면서 매년 2.3%의 石油消費減少를 실현시켰다는 것은 우리 産業도 石油生産性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價格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한 原價節減과 物價安定을 이룩하고 品質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한 技術의 導入·開發 및 蓄積의 體系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적인 品質管理(Total Quality Control) 運動을 전개시켜 世界市場에서 우리 商品의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결국 對內外經濟與件에 對應, 比較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設備投資擴大 및 輸出商品國際競爭力強化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 産業=貿易의 연제화에 의한 生産特化指數의 提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